

学習成果報告

—忘れられない日本での一年間—

2005年4月～2006年3月受入交換留学生
韓国カトリック大学言語文化学部 3年
林 智善 (イム・ジソン)

「交換留学、私自身がアップグレードできる強力な機会。」2005年4月からの日本での留学生活は、このような心掛けで始まった。「生まれて初めての一人暮らし、それも日本という見知らぬ場所で」という心配から、不安な気持ちもあったが、新しい生活に対する期待も大きかった。

1年間。短いと言えば短い、今考えてみると本当に長い時間のように感じられた。それは、今まで韓国では全く経験できなかった日本文化を、身をもって体験したり、たくさんの人々との出会いがあったからであろう。日本に来る前、韓国で日本語日本文化を専攻していた私は、ただ言語だけではなく、文化を体験することが留学生活での希望であった。その面で、2005年は生きている日本との出会いであった。

まず、前期は留学生センターの授業を中心に受けたので、授業を受けることでいろいろな日本文化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た。特に「伝統文化実習」と「教室外活動」という授業を通じて、本や映画でしか見られなかった日本文化を実際に体験することができた。例えば、日本の伝統楽器である琴で『桜』を弾いてみたり、着物を着たり、また茶道と神社での体験を通して日本の「道」という文化について考えてみたり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すべてが、日本においてだけの貴重な経験になった。

もちろん会話、作文、漢字などの授業を通じて、日本語の実力を付けることも疎かにしなかった。まず「会話」では、多様な状況の設定で、友達同士の会話、目上の人との会話などにおいて使われるいろいろな表現を練習した。また「作文」では、毎週作文をし、足りなかった作文能力を向上させることができた。そして、個人的に日本語の勉強で一番難しかった漢字は、「漢字」の授業を通じてある程度自信が付いたと思う。「文型」の授業では、各種の日本語試験で出題された試験向けの文型を習い、日本語能力試験一級を取るのに、大きく役立った。「読解」の授業では、ただ文を読んで内容を理解することだけではなく、日本の現代事情が分

かる多様な文に接することができて良かった。最後に「発音」の授業では、自分の発音を録音し、自己評価ができたので、普段聞き逃しやすいアクセントやイントネーションまでチェックすることができた。

また後期には、範囲を広げた授業の受講と旅行で、言語の勉強と文化の体験を続けた。前期の留学生センターの授業を通じて、ある程度の日本語能力が付いたのか、後期からはより多様な授業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日本語文法ゼミ」や「日本文学史」、「J-POP の日本語」などがその例である。まず、「日本文学史」は、源氏物語からはじめ、多様な日本の文学作品を味わうことができた。特に昔話の時代性については、個人的に興味深く、最終レポートもこれについて書いた。そして、「J-POP の日本語」では、日常生活でよく耳にした J-POP を、日本語学的な観点から見直し、分析する方法を勉強した。J-POP を耳を済ませて聞いてみると、昔話と同じように、時代によってよく使われている単語や発音に差があり、これらを通じて時代の流れを感じる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な研究法については今まで韓国では習っ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とても面白かった。また、興味深かったもう一つの授業は、「日本語文法ゼミ」である。韓国では自分の意見を日本語で話す機会が少なかったのだが、この授業では、他の学生たちと話し合いながら結論を作り出すことが何より重要な部分だった。この授業は、韓国国内で韓国語で勉強した日本語の文法論とは違い、生の日本語の文法論が習える良い機会になったと思う。

このように充実した学校の授業以外にも、1年間の留学生活で絶対に忘れられないことは、いろいろな旅行であった。旅行を通して、日本文化の体験はもちろん、精神的にもより自分自身が成長できると思ったので、長期休暇と休日を使って、いろいろな場所へ足を伸ばした。留学生センターの修了旅行であった黒部ダムをはじめ、世界万国博覧会の愛知、軽飛行機に乗って出かけた富山、また美しい自然の上高地、生まれて初めての一人旅である北海道、祭りでキラキラした高山、歴史の都市の京都、大阪、神戸、首都の東京、スキー旅行の白馬に至るまで、日本各地へ行った。

この中でも、一番記憶に残っているのは高山で、1泊2日の短い旅行だったが、日本の三大祭りの一つである高山祭り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た。去年は、祭りの日が祝日とちが合ったので、運良く祝日に旅行に出ることができた。松本からバスで2時間程しかかからなかった岐阜県の高山は、小さい京都というニックネームにふさわしく、日本特有の雰囲気を感じる場所だった。華やかで美しい屋台の行列は、秋の青空と一つになって高山ならではの景色だった。また旧市役所で行われた行事のおかげで、趣のある着物を着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屋台が並んでいる古風な町を、日本の伝統衣装である着物を着て急ぎ足で歩いてみると、まるで江戸時代に戻ったような気分だった。特に、偶然祭りを生中継していた地

域番組のインタビューも受けて、本当に日本での貴重な経験になった。

日本での1年間は、日本ならではの経験、出会いでその幕が下りた。悲しいけれど、涙が出るほど別れたくない友だちができたこと、お母さんと呼べるほど親切にしてくださった小林さん、そして、その家族の方々と出会えて嬉しかった。また、いつも優しく、細かい部分にまで気を遣ってくださった沖先生と韓国のカン先生とイ先生にも感謝の気持ちを伝えたい。この短い紙面では書ききれないが、私の人生で二度とない幸せな日々を作ってくださったたくさんの方々にも本当に感謝している。2006年3月に韓国へ帰ったら、日本で感じたすべてを元にもっとすばらしい私になりたい。

학습 성과 보고서

-잇을 수 없는 일본에서의 1년-

2005년4월부터2006년3월까지 신수대학교 교환유학생
한국 가톨릭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 전공 3학년 임지선

‘교환학생,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회’

2005년 4월에 시작된 일본에서의 내 유학생생활은 이와 같은 마음 가짐으로 시작됐다. ‘생애 처음으로 해보는 독립생활, 그것도 일본이라는 낯선 곳에서’라는 걱정에 불안한 마음도 컸지만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도 컸다.

1년, 짧다고 하면 짧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본문화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으로 오기 전 한국에서 일본어 일본문화를 전공했던 나는, 단지 언어뿐만이 아닌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유학 생활의 바람이었다. 그런 점에서 2005년은 살아있는 일본과의 만남이었다.

우선 1학기의 경우, 유학생 센터 수업을 중심으로 들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다양한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전통문화실습’과 ‘교실 외 활동’이라는 수업을 통해 책이나 영화에서 밖에 볼 수 없었던 일본문화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 전통 악기인 고토로 ‘사쿠라’를 치고, 기모노를 입기도 했으며, 다도와 신사에서의 체험을 통해 일본의 ‘도(道)’란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했다. 이 모두가 일본에서만만의 귀중한 경험이었다. 물론 회화, 작문, 한자 등의 수업을 통해 일본어 실력을 쌓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선 ‘회화’수업에서는 다양한

상황 설정을 통해 친구끼리의 회화, 웃어른과의 회화 등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현을 연습했다. 또한 ‘작문’수업에서는 매 주 글짓기를 함으로써 짧은 작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본어 공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한자의 벽을 ‘한자’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본다. ‘문형’수업에서는 각종 일본어 시험에서 출제되는 시험용 문형을 배울 수 있어,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취득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독해’수업은 단지 글을 읽고 내용을 추려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의 현대 사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글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마지막으로 ‘발음’수업에서는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고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평소 놓치기 쉬운 악센트나 인토네이션까지 체크할 수 있었다.

이어서 2학기에는 범위를 넓힌 수업 수강과 여행으로 일본어 공부와 문화체험을 계속했다. 1학기의 유학생 센터 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일본어 실력이 붙었다고 판단해, 2학기부터는 보다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일본어 문법 세미나’, ‘일본 문학사’, ‘J-POP일본어’ 등이 그 예이다. 우선 ‘일본문학사’는 겐지 이야기를 비롯해 다양한 문학작품을 맛볼 수 있었다. 특히 전래 동화의 시대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흥미가 깊어 최종 레포트도 이를 주제로 해서 썼다. 그리고 ‘J-POP일본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던 J-POP을 일본어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 공부했다. J-POP을 유심히 들어보니 전래동화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자주 사용되던 단어나 발음에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해서도 시대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선 배운 적이 없었기에 굉장히 흥미로웠다. 덧붙여 또 하나의 흥미로운 수업은 ‘일본어 문법 세미나’였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일본어로 말할 기회가 적었던 것에 비해 이 수업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이 수업은 한국 국내에서 한국어로 공부한 일본어 문법론과는 다른 현지 일본어 문법론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이렇게 알찬 학교수업 이외에도 1년간의 유학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크고 작은 여행이었다. 여행을 통해 일본문화 체험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좀 더 성숙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방학기간과 휴일을 이용해 정말 열심히 여행을 다녔다. 유학생 센터의 수료여행이었던 쿠로베 댐, 세계 만국 박람회가 있던 아이치, 경비행기를 타고 떠났던 토야마, 아름다운 천연의 자연 카미코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떠나 본 홋카이도, 마쓰리로 빛나던 다카야마, 역사의 도시 교토, 오사카, 고베, 일본의 수도 도쿄, 스키여행의 하쿠바에 이르기까지 일본 각지의 이곳저곳을 여행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바로

다카야마로 1박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일본의 3대 마쓰리 중 하나인 다카야마 마쓰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작년의 경우 마쓰리가 있는 날이 휴일과 겹쳤기 때문에 운 좋게 휴일을 이용해 다녀올 수 있었다. 마츠모토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던 기후현의 다카야마는 리틀 교토라는 별명에 걸맞게 일본 특유의 색이 짙은 곳이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야타이 행렬은 정말로 아름다웠으며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다카야마 마쓰리 만의 멋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구 시청의 특별 행사로 기모노도 입을 수 있었는데, 야타이가 늘어선 고풍스러운 길을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총총 걸음으로 걷자 마치 에도 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특히 우연히 마쓰리를 생중계하던 지역 방송에 찍혀 인터뷰를 했던 것은 일본에서만만의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2005년 일본에서의 1년은, 일본에서만 경험, 만남으로 그 막을 내렸다. 아쉽기도 하지만, 눈물이 날만큼 헤어지기 힘든 친구들이 생겨 기뻐고,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고바야시씨 그리고 그 가족분들과 만나 기뻐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챙겨 주시던 오키 선생님과 한국의 강선생님, 이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 작은 지면에는 모두 실을 수 없지만,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없을 행복한 날을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감사 드린다. 2006년 3월,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곳에서 느낀 모든 것을 바탕으로 그 분들에게 사랑스러운 내가 되고 싶다.